

012923 주일설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 미가(Micah) 6:1-8

미가서는 7장으로 기록된 비교적 짧은 말씀입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 같은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미가 선지자의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장이 첫 번째 설교, 3-5장이 두 번째 설교, 6-7장이 세 번째 설교입니다. 3가지의 설교를 구분하는 동일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바로 “들올지어다”입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올지어다” (미 1:2). “통치자들아 들으라” (미 3:1).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올지어다” (미 6:1).

미가서를 쪽 읽어나가다가 “들올지어다”가 나오면, “아, 새로운 설교가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그 세 편의 설교 모두가 내용 구성도 같아요. 전반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구요, 후반부는 회복과 구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B.C. 8세기인데요, 그 당시에 네 명의 유명한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호세아와 아모스가 활동했구요, 남왕국 유다에서는 이사야와 미가가 활동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선지자가 많다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유명한 선지자가 많으니까 좋다? 물론 좋지요! 그런데, 여러 선지자가 동시대에 활동했다는 건 그만큼 임박했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심판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겁니다.

당시 유다 왕국의 국내 사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유다사회에 만연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유다사회에 충만했던 부패였습니다. 미가서에 기록된 구체적인 사회상을 몇 가지 나열해 보면, 지주들과 종교 및 정치 지도자들은 권력을 남용하고 악한 일을 꾸몄구요,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고, 도둑질했구요,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했고, 뇌물을 받고, 종교적 지위를 통해 이익을 추구했고, 부정한 거래 관행을 일삼았고, 폭력과 거짓을 행하고 자기 백성을 죽였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즉 북쪽 남쪽 모두에 있는 탐욕스러운 지주들과 부패한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몸에도 상처가 납니다. 그런데 빨리 치료하면 비교적 빨리 그리고 비교적 간단하게 나을 수가 있는데, 치료할 시기를 놓치면요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굼기 시작해요! 막상 굼기 시작하면 굼은 부위를 살을 찌고 고름을 짜내야만 새 살이 돋습니다. 안 그러면 그 옆에 멀쩡한 부위도 함께 썩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잔인해서 재앙을 내리셨다?’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사회가 더 굼기 전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란게 한번 그 맛을 보면 참~ 멈추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여호와/야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 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행해졌던 형식적인 제사의 모습을 꼬집습니다. “내가 번제물로 일 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당시 사람들에게겐 일년된 송아지라면 참 귀한 것이었을텐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송아지 때문에 기뻐하실까 묻고 있어요. 그러다가 스케일이 갑자기 커집니다! 뭔가 극한값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숫양 수천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면 기뻐하실까요? 당시에는 기름이 참 귀했던 시절인데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면 기뻐하실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은데 그 허물을 위해 내 맏아들을 제물로 바치면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영혼의 죄를 위해 내 몸의 열매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으로 된다는 애김니까 안된다는 애김니까? 안된다는거예요! 하나님께서 숫양 한두 마리 정도는 그까짓 것하고 안받으시고 숫양 수천마리 가져오면 ‘뭘 이런걸 다~’ 하며 받으시겠다는 건가요? 아니예요! 숫양 수천마리의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의 문제가 아니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물질이 있는곳에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물질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중심을 세상에 두고 있는지 하나님께 두고 있는지를 물으시는 겁니다.

8절 말씀이 참 귀하죠! “사람아!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기서 선한 것이란, 내 눈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이미 보이셨다 했어요. 다시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게 여기시는 줄 모르는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세상에 원리 속에 살다보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우선시하다가 내 삶이 썩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정의를 행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할 말이 있어요. 스스로를 나름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차 대전 중 나치에 관한 실화입니다. 독일교회 교인 중 경건한 신자들이 성 금요일 날, 3시간이 넘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마태 수난곡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수용소에 가서,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죽이는 일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서슴없이 했습니다.

*남의 나라 일 만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도 언젠가 큰 돈을 횡령하는 금융 사고를 저지른 은행 간부가 체포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자기 월급분만 아니라, 횡령해서 얻은 돈까지도 그는 철저히 계산해서 십일조를 철저히 드렸어요. 훗날 돈이라도 십일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착각했던 모양입니다. 우리 삶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로 아름답게 고백되며 사는지 아닌지 우리는 늘 살펴야만 합니다. 자기 소견에 따라 정의를 지키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성경을 통해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첫번째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었고 두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영어로 mercy를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무자비한 일들이 비일비재 발생합

니다. 이런 속에서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한 이등병이 있었습니다. 어느 몹시 추운 겨울날 밖에서 언 손을 녹여가며 찬물로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곳을 지나던 소대장이 그 모습을 보고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김 이병 추운날씨에 고생이 많다. 저기 취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을 좀 얻어다 빨래해라!” 김 이병은 소대장의 말을 듣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취사장으로 뜨거운 물을 얻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취사반의 고참 병사에게 군기가 빠져다는 핀잔과 함께 눈물이 쏟아질 만큼 얼차려만 받았어요.

빈손으로 돌아와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찬물로 빨래를 계속하고 있을 때, 중대장이 지나가면서 찬물로 빨래하는 김 이병을 보았습니다. 중대장도 역시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김 이병! 그러다 손에 동상 걸리겠다. 저기 취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 좀 얻어다가 빨래해라!” 김 이병은 “넛!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은 했지만, 이번엔 취사반으로 가지 않고 그냥 앉아서 빨래를 했어요. 왜요? 취사장에 가봤자 뜨거운 물 대신 기함만 호되게 받을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계속 빨래를 하고 있을 때, 중년의 인사계를 하는 부사관이 지나다가 추운날 찬물로 빨래를 하고 있는 김 이병을 발견하고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마디 했어요. “김 이병, 내가 세수를 좀 하려고 한다. 그러니 저기 취사장에 달려가서 큰 대야에 뜨거운 물을 가득 받아와라! 실시!” 이 말을 들은 김 이병은 빨래하던 손을 멈추고 취사반으로 달려가서 취사병에게 보고하고는 뜨거운 물을 큰 대야에 가득 받아왔습니다. 인사계는 “김 이병! 그 물로 언 손을 녹여가며 빨래해라! 빨래하기에는 충분한 양은 안 되지만 동상은 걸리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남기고 갈 길을 갔습니다.

소대장과 중대장, 그리고 부사관, 이 세 명의 상급자 모두가 신병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부하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도 부하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준 사람은 단 한 사람뿐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세상이 무자비한 세상이어서

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 보려는 조금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초인의 의지’나 ‘성자의 헌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생활 속의 작은 실천으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즉 하나님과 함께 인생 길을 걷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나름대로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으려고 합니다. 주로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예배드리는 분위기에 휩쓸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같고 하나님 함께 걷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인생이 너무 잘 풀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왜이렇게 힘들니까? 또 반대로, 인생이 너무 안풀려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해서 잠언 30장 아굴의 기도를 보면 그는 일찍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찬란한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걸으시길 소원합니다. 또 여러분 인생에 폭풍이 일어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걸으시길 축복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청년의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걸으시고, 건강이 불확실한 장년의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걸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말씀은 제사의 바른 정신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의 정신은 오늘날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예배의 정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1,하나님의 정의를 배우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정의가 아니라), 2.하나님의 인자를 배우고, 3.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3가지를 부디 여러분 마음판에 세기고 가시길 바랍니다.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은 너무나 유명해서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이것을 뮤지컬로 만들어서 참 오랜시간 뉴욕 맨하튼에서 공연을 하는데 도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감동이 있어서 그렇지요. '레 미제라블' 한국사람들에게 '장발장'으로 소개가 되었죠. 배고파서, 오로지 배고파서 빵 하나 훔쳤는데 이 죄 때문에 그는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19년 동안. 그 동안 인간의 복수 본능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점점 사나운 사람이 됩니다. 주먹이 얼마나 사나운지 그를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복수심을 불태우며 19년을 지내고 감옥에서 나옵니다. 자기를 감옥에 처넣은 그 형사, 꼭 죽이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 곳이 없습니다. 전과자가 되어서 하룻밤 쉼 곳도 없습니다. 어느 신부가 그를 영접해 주었는데 그 방에서 자다가 은잔이 그 곳에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훔쳐서 나옵니다.

저것을 생활의 밑천으로 삼으려고. 그러다가 바로 들켰습니다. 체포되어서 신부 앞에 나타났을 때에 신부는 말합니다. 빙그레 웃으면서 "제가 준 선물입니다. 저 사람 도둑질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이 은촛대도 주었는데 왜 이것은 안가지고 갔습니까? 이 은촛대도 같이 가져가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팔면 은이라서 아마 200프랑은 죽히 받을 것입니다. 그럴텐데 왜 이것은 안가지고 갔습니까?" 선물로 주었다고. 이 무조건적인 뜨거운 사랑이 이 장발장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 용서와 자비가 이 극악한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 평생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살 것이다' 맹세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게 어려웠던 것은 예전에 자기를 체포했던 형사가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당시 범으로는, 출소자가 일정 기간동안 정해진 구역을 벗어나는게 불법이었으니까요. 어쩌면 다시 걸리가만 해봐라 했을 수도 있겠죠.) 이 어두운 과거가 계속 자신을 괴롭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해가면서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레 미제라블. 여러분, 참으로 사람을 바꿔 놓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그 무거운 마음, 그 증오의 마음, 그 질투하는 마음, 이 악한 마음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길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C.S. 루이스의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에로스에서 태어나고 스톨게에서 성장하고 필로스에서 성숙하고 아가페에서 완성된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돌아갈 때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갈 때에 나도 살고 저도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서를 통해 인간의 부패와 하나님의 심판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미가서의 메시지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새로운 사회만이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실 나라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나라 백성이 되어서 주와 함께 걸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하시는 것!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성도들 다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